

국제교류교육원 해외 단기 어학연수 보고서

이 름	박재은	소 속	메디컬융합공학과
학 년	4	학 번	20150528
연수 국가	일본	연수 기관	오사카부립대학교
연수 기간	2018.07.02.~2018.07.26		

일본 오사카 부립대학교로 가는 단기 어학연수는 일본어를 배우러가는 연수는 아닙니다. 오사카 부립대학교의 대학원 연구실을 지정받고 한달동안 그 연구실의 실험 또는 연구를 받고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제 전공은 아니지만 기계설비대학원에 배정 받았습니다.

먼저 숙소는 오사카 난바의 레몬 하우스라는 곳을 갔습니다. 학교를 가기에는 약 30~40분 정도 걸리는 먼 거리 이지만 길이 쉽고 다른 곳을 가기에 좋은 위치였습니다. 여자 숙소는 도미토리가 한곳인데 4인실입니다. 저는 일본인2명과 대만인 한명과 한방을 사용했습니다.

연구실은 4학년학생들과 석사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건물 은 매우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저는 4학년 학생들이 했던 것 중 한 실험과제를 받았습니다. 교수님과 석사한분과 실험을 따로 했습니다. 제가 일본어회화가 부족해서 영어와 일본어를 섞어서 친절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어로 재미 라고 하는 세미나 형태의 수업을 했습니다. 저는 수치해석법의 영어원서를 학교 도서관에서 대여하여 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제 전공도 아닌데다가 영어를 보고 일본어를 듣는 수업은 정말 어려웠기에 예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4학년 학생들이 듣는 수치해석법 수업에 참여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정해진 시간표입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실험보고서 수업공부 개인적인 일본어 공부를 했습니다. 도서관 카드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공부도할 수 있고 책도 대여 할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공식이나 문제는 일본인 친구에게 물어가며 풀었습니다. 그리고 첫 수업을 마치고 환영회를 해줬습니다. 타코야끼를 만들어 먹고 이야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학원 연구실 마다 다른데 제가 간곳은 pc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사용했습니다.

학업적인 부분외로는 친해진 일본인 친구들과 함께 교토 고베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사카 부립대의 한국인 유학생들과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사카의 7월은 너무 더웠어서 학교 다니기에 여행 다니기에는 정말 힘든 날씨였습니다. 일본을 처음 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설렘보다는 제 또래의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고 친해지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일본어 또한 친절하게 고쳐주고 제이야기를 천천히 들어주어서 많이 배우고 자신감도 많이 생겼습니다. 정말 즐겁고 보람있는 특별한 한달 이였습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하고싶습니다.